

BHP, 글로벌 철광석 독과점 “논란”

세계3위 Riotinto 780억달러에 인수 ... EU·일본은 반독점 부정적 입장

세계 최대의 광산기업인 오스트레일리아의 BHP Billiton이 세계 3위인 오스트레일리아 Riotinto를 무려 780억달러(99조8000억원)에 인수한 것을 놓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EU는 세계 최대의 광산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BHP Billiton의 Riotinto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놓고 반독점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BHP는 인수반대 입장을 담은 EU 집행위원회의 성명서를 최근 접수했다고 밝혔다.

BHP Billiton은 EU가 인수반대 입장을 최종 확정하기 이전에 인수 타당성 등을 강조해 인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7월부터 양사 인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EU는 BHP Billiton의 Riotinto 인수가 철광석 가격을 상승시키고 EU의 철광석 및 천연자원 구매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공정경쟁 당국도 11월6일 BHP Billiton에 대해 철광석 공급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역시 관련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양사 합병이 철광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독점 차원에서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등은 BHP Billiton의 Riotinto 인수가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05>